

배포 일시	2022. 11. 8.(화)		
담당 부서	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	책임자	과 장 정진훈 (044-201-3337)
		담당자	사무관 홍정배 (044-201-3340) 사무관 배기훈 (044-201-3339)
보도일시	2022년 11월 8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8.(화) 12:00 이후 보도 가능		

주택청약저축 금리, 11월 인상

- 현재 1.8%에서 2.1%로 조정...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12월 인상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, 국민 편의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(청약저축)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.3%p 인상한다고 밝혔다.
 -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.8%에서 2.1%로, 국민주택채권 발행 금리는 현재 1.0%에서 1.3%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.
-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,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,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*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.
 - * 통합공공임대 주택자금 연 1.8%, 디딤돌 대출(구입) 2.15~3.0%(생애최초·신혼부부 전용은 최저 1.85%), 버팀목 대출(전세) 1.8~2.4%(신혼부부·청년 전용은 최저 1.2%) 등
-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*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,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,
 - * 美 기준금리 '21.7월 0.25%→'22.11월 4.00%, 韓 기준금리 '21.7월 0.50%→'22.10월 3.00%

○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 등의 인상이 필요하나,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다.

□ 다만,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,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*하기로 한 만큼,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.

* 버팀목 대출(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, 7.20), 디딤돌 대출(추석 민생안정대책, 8.11)

○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, 기금운용심의회 심의, 행정예고,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,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,

-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*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,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** 줄어들게 된다.

* 청약저축 납입액 1천만원 가정 시 現 이자 18만원→21만원(+3만원)

** 국민주택채권 1천만원 즉시 매도시 現 부담금 172만원→157만원(△15만원 '22.10월말 기준)

□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“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,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,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” 이라면서,

○ “내년 초 금리 상황,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·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” 라고 밝혔다.